



“한국의 美 배워 남주자”

매주 금, 토요일 170여명 활동 60시간 교육, 선발 과정 엄격 답사 통해 문화재 안목 넓혀

◇우리 궁궐 지킴이 경북공 봉사단 정인영, 김재덕, 반성화, 여인애, 유종숙 보살.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바라밀현장

우리 궁궐 지킴이 불자들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로,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궁궐이다. 서울 시민에게 이네 궁궐들의 의미를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가장 듣기 쉬운 대답은 ‘도심 속의 안식처’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현재 궁궐의 옹도란 보면 ‘휴식공간’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지만, 궁궐의 문화재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지요. 조선시대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 ‘문화유산’이 바로 궁궐입니다.”

11월 28일 경복궁에서 만난 ‘우리 궁궐 지킴이’ 불자 5인. 근정전 앞에서 궁궐이야기를 시작한 그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궁궐객의 눈길과 발길을 좇으며 궁궐 만담을 계속했다. 현재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로 등지에서 ‘궁궐 사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자원봉사 단체 우리 궁궐 지킴이가 만든 모임. 17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은 지난 99년 6월 시민단체 ‘저레문화답사’가 만든 모임. 17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은 금·토요일 마다 궁궐의 유래와 역사, 건축물의 옹도와 쓰임새 등은 물론, 궁궐의 주변 환경 및 관람 질서, 문화재 정책까지 모니터링하며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우리 궁궐을 가깝고 친근한 곳으로 만들고,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취지만큼 이들의 전문성 또한 빛이 난다.

궁궐지킴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달간 60시간에 걸친 강의와 현장 답사를 통한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수료하면 6개월 동안 선배 지킴이와 함께 수습기간에 들어간다. 이 같은 교육시간만큼 선발과정도 엄격하다. 무보수 순수 자원봉사인에도 세 번 지킴이로 결성, 세 번 결성하면 퇴짜라는 규율을 적용해, 지원자 중 60퍼센트만이 살아남을 정도다. 우리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은 그만큼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쉽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엄한 교육과정의 지킴이 됐다.

“역사공부뿐만이 아니에요. 궁궐을 공부하다 보면 불교미술과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요. 정기적으로 사찰답사를 떠날 때면 사찰의 단청이나 주련을 유심히 살펴게 되죠. 그러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구요.”

김영길(45) 씨는 조선시대를 이해하려고 시작한 궁궐지킴이 덕에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유물 안내 자원봉사까지 맡게 됐다. 김 씨 외에도 서울시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재 현장학습 교사 등 문화재 관련 업무와 인연이 닿은 회원들이 많다. 그런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문화재를 보는 안목 또한 깊어져, 궁궐지킴이 요청으로 사찰전 해시터 단이 마련되기도 했고 균열이 생긴 기와의 보수관리 신청 또한 왕왕 이어지기도 한다.

“배워서 남주자”를 모토로 오늘날 궁궐 구석구석을 홍보하는 우리궁궐지킴이. 그들의 세심한 정성과 프로의식이 세계적인 한국의 미(美)로 꽃피어 오를 날을 기대해 본다. (02)723-4206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장 스님 (1)

대만 불교 국제화에 앞장

지난 백여년 동안 중국은 국력이 약해지고 서구 열강들의 침략에 의해 할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한 이래 여러 부문에서 침탈을 당해 왔다. 그 중에서도 천주교나 개신교의 선교사들은 무력과 의학을 앞세워 선교에 앞장선 결과 중국에도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불교가 대만에서 다시 불교의 싹을 틔웠지만, 1950년대의 대만 사회는 불교적 풍토가 메마르기 그지없었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가 성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박한 시기에 불문에 뛰어든 묘령의 여성이

대사가 머문 뫼우사에 가서 여러가지 일을 도우면서 설법을 들었는데, 이 거사의 말 중에 들었던 신타오(新桃)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이 신타오가 뒷날의 자장 스님으로서, 그 당시에 뛰어난 성적으로 난양여고를 졸업하고 학교의 교무처에서 일하는 신여성이었다.

신타오가 불교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도대체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뫼우사에 열심히 다니는지 궁금해서 집에 가 본 것이다. 특히 불교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미신



◇서구 최대의 사찰인 미국 LA 서래사를 건립한 자장 스님(맨 오른쪽).

성운대사 모신지 10여년 만에 계 받아 출가인에 대한 편견 불식 시키는데 노력

있었으니, 그 분이 곧 대만 비구니계의 원로인 자장(慈莊) 스님이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대만은 불교 국가나 다름없을 정도로 불법이 온 나라에 전해졌지만, 이제 귀밀머리가 하얗게 세버린 이 흥안의 노 스님은 아직도 국내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바다를 끼고 산에 의지해 있는 타이완 이란(宜蘭)의 조후산 마을에서 태어난 자장 스님은 이미 전생에 불교와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

스님의 부친인 이결화(李決和) 거사는 독실한 불자로서 고향의 노인들과 후배들을 위해 자주 타이베이에 가서 스님을 모셔다 설법을 들도록 했다. 그러던 중 1952년 중국불교협회 이사선출 회의에서 젊고 열정적인 성운(불광산사 개산종장) 대사를 만났다. 그 해 말, 성운 대사는 이 거사의 초청에 응하여 이란의 뫼우사(雷音寺)로 왔다.

자장 스님의 부모는 매일 같이 성운

으로 여겼던 신여성 신타오에게 성운 대사의 설법과 대중을 이끄는 법력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던 중 1954년 구정 무렵, 성운 대사가 신도들을 이끌고 신주(新竹) 사두산이란 곳을 참배하게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신타오도 동행하게 되었다. 이때 비로소 성운 대사에 깊은 감화를 받은 신타오는 시간만 나면 성운 대사가 머무는 절에 가서 자원 봉사를 했다. 이 당시 그녀는 아버지가 설립한 이란에서 가장 큰 대안백 화점에서 경리 일을 돕고 있었는데,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 후에도 틈을 내어 절에 가서 봉사를 했다.

1965년 성운 대사가 까오승 수산사(壽山寺)를 낙성하고 출가 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자장 스님도 법운사(法雲寺)에서 비구니계를 받았고 불광산사 개산종장 대사를 만났다. 그 당시만 해도 불교계에 신타오와 같은 신여성들이 뛰어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계속)

김재경 기자

아픈 마음속 푸른 자연 키우세요

“처음에는 정신질환자를 상대한다는 이유로 두렵고 떨렸지만, 함께 꽃을 가꾸며 그 같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약사여래의 마음을 전하는 불자들이 있다. 대구 배성병원에서 원예치료 봉사를 펼치는 불자 5인이 바로 그들. 이들 불자는 작년 말부터 매주 수요일 병원을 찾아 눈, 코, 손, 머리 등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원예치료법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이 배성병원 봉사를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말, 꽃꽂이 교실에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원예치료를 전해들은 것이 인연이 돼, 원예치료 연구센터의 원예치료사 교육과정에 등록하게 됐다.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원예치료사 도우미로 수개월을 봉사하면

환자 표정, 감성 밝아져
치료 자체가 불법 실천

서 노후우를 쌓았다. 그들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병원의 ‘원예치료 교실’은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 됐다.

그러나 5명의 치료사들이 40여명의 환자들을 상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초어도 정상인의 의식과는 차이가 있기에 소꿉은 물론 말 한마디에 늘 신경을 쏟아부어야 했다. 이렇게 어려운 봉사를 왜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일었다. 그러나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봉사하다보니 원예



◇원예치료 봉사자들이 대구 배성병원에서 정신질환자들과 함께 원예치료 시간을 갖고 있다.

치료 자체가 곧 불법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자연 속에서 내가 자라고 내 속에서 자연을 키우는 것이 곧 원예치료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봉사를 끝내고 가끔 정병사에 들러 꽃공양을 올리기도 한다는 불자치료사들. 특히 박범숙 씨(44)는 대구불교대학에서 불교강의도 듣고 꽃꽂이 무료 강의를 펼칠 정도로

불교사랑 · 꽃사랑 마음이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배성병원 환자들의 표정과 감성이 나날이 되살아나고 있다. 치료사들을 기다리며 병원구석구석에 선물을 숨겨놓기까지 한다는 그들. 그들 마음이 부처님 마음 같은 빛을 낼 때까지 치료사들의 봉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011)9389-2667

강신재 기자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영혼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 과정 이수 후 김사사례 중에서

WWW.HYPNOS114.COM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가 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영성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치유에 필수적인 전생퇴행기법과 빙의치료기법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수행일정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은 실험, 검증, 효용을 높일 수 있는 학제적 체계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법일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인과관계 등으로 인해 윤리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통도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동할 따름입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형과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 하여 도와주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신할 때마다 밀려들던 알 수 없는 희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경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한 여러 불사를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한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의 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00사 00 합장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최면 이론 : 최면개론, 활용범위, 최면양식, 시술매트,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명효과와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 연령회행 실기 : 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점분석 및 통찰,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 전생회행 실기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정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한다.
4. 미래회행 실기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 영가천도 실기 : 빙의된 영가의 확인,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중재치유, 영가치유, 영가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 범죄,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범죄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자문한다.
7. 치유력향상실기 : 대생강화와 최면치유임시에 의해 심신질환의 자연치유력 향상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9-30(세운빌딩 2층) 전라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대외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원장
한국생활최면심리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푸른빛기운운동본부 부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전생성명사 인증서 수여
【정규개강】 2003년 12월 19일(금요일) 12:30
【교육기간】 2003년 12월 19, 26일, 1월 2, 9일
매주 금요일, 총 4회
오후 12:30~오후 8:00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입금 후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이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회비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